



● 선외기 정비 · 점검요령

● 프로펠러의 점검과 교환

가. 프로펠러의 점검

- 선외기 사용 후에 물로 세척할 때 프로펠러의 상태를 매회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프로펠러가 모래와 마찰하여 블레이드 끝단이 서서히 마모되어 짧고 얇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해 프로펠러에 걸리는 저항이 적어지고 추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항이 적어지게 되면, 엔진에 걸리는 부하가 감소하여 전속시의 회전수가 규정의 상한값을 초과하여 엔진 각부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 또, 유목이나 암초에 부딪혀 블레이드가 경미하게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프로펠러샤프트에 이상진동이 발생하여 샤프트와 관련된 부품(오일 실, 베벨기어 등)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선외기를 사용한 후 틸트업하여 프로펠러의 변형 및 손상여부, 회전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 타 부위의 추가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 프로펠러에 금이 간 부분이 있다면 교환하고, 작은 손상이나 변형은 먼이 가는 (쇠)줄로 형태를 다듬고, 샌드페이퍼로 연마하고 나서 자동차용 스프레이 도료를 칠합니다. 도장을 해두면 손상이나 마멸을 발견하기 쉬워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